

관음상의 미소와 치유의 길

의정단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이른바 '종교 절벽'의 시대다. 종교 절벽이란 종교인수와 신도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불교계는 지난 1991년 517명에 달했던 출가자는 2022년에는 61명으로 약 88%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2년 한국천주교주교회 신학생 수는 75명으로 1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았던 개신교도 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총신대는 지난 2023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사실 종교 절벽은 단순히 출가자나 신학생 수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종교절벽을 다룬 한 언론기사에서 어느 종교계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저출산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확산되고 집단 감염 확산과 관련된 종교계 이슈가 겹치면서 대중들이 종교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종교 절벽의 시대에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갖춘 현대인들은 과연 행복할까? 답은 당연히 '아니오'이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744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요하며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는 종교가 새롭게 변화해야 할 때이다. 하루에 자살자 수가 40명에 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백만 명을 넘는 현실에서 종교가 대중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안군 전통사찰 관음전 신축사업이다. 관내 전통 사찰에 새로 준공된 관음전은 불교인을 위한 신앙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춘 사회적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관음전의 외관은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미려한 요소를 담았으며 관음전 내부에서는 치유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 센터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자비를 베푸는 관음보살처럼 전통사찰의 이러한 변화는 종교 공간이 어떻게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관음전 신축에 이바지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으면서 종교의 변화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종교계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교시설이 단순히 기도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치유와 안정, 상담과 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타지역 방문객을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면 지자체의 현실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종교는 더 이상 단순히 신앙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과학과 합리주의가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면의 안정과 마음의 치유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종교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관음전 신축사업은 그 작은 시작을 알리는 모범사례이다. 전통적인 사찰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치유와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난 관음전은 종교가 현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단지 종교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될 때 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위축된 나눔 문화 식지 않게 관심 가져야

불황·계엄으로 참여율 낮아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12·3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치면서 연말연시 나눔 문화가 위축되고 있어 걱정이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모금에 나서고 있지만 예년 대비 20~30% 감소했다는 것이 구세군 측의 설명이다. 대표 모금 활동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사랑의열매)의 '희망2025나눔 캠페인' 참여율도 지난해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목표액은 51억원으로 지난 16일 오후 기준 15억 4200만원(30.1도)의 모금액이 모였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전남 사랑의 온도탑도 최종 모금액 113억 9000만원 중 지난 17일 오후 기준 31억 1000만원이 모여 27.3도를 기록했다.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44억 3000만원(42.2도)으로 무려 15도 가량 낮다.

현혈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어 혈

액 수급도 빨간불이다. 대한적십자협회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12일 기준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은 4.6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5.6일분으로 올해 혈액 수급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기부 위축 심리로 이어지면서 개인, 기업, 단체 등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눔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한다. 따뜻한 나눔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소중한 힘이 된다. 본격적인 한파와 학교 방학철이 시작되면 혈액수급이 어려워지기에 생명나눔 참여도 절실하다. 한때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살피던 오월정신은 지역의 자부심이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올 겨울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

'관광의 별' 된 청산도 '관광 전남' 계기 되길

친환경 관광 분야 본상 수상

완도 청산도가 '2024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한국 관광의 별'은 대한민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수여하는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완도 청산도는 지난 18일 열린 시상식에서 친환경 관광 콘텐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21세기 들어 관광산업이 거대한 변화이면서 기회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청산도의 가치는 때문지 않은 자연환경과 잘 보존된 고유의 전통문화에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구들장 논과 환경지표종인 긴꼬리 투구 새우가 서식하는 이곳은 빛 공해가 적어 2월부터 11월까지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6월에는 청정한 자연에서 구들장 논을 감상할 수 있다. 봄이면 만개한 유채꽃과 청보리의 푸른 물결도 청산도의 자랑이다. 생태환경과 해녀, 돌담, 구들장 논 등 고유한 전통문화도 산재해 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에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의 미래 먹거리다.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음식이나 전통문화 등으로 확장된 K컬처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가능성도 높다. 특히 청산도의 장점인 '웰빙'과 '먹거리', 전통문화와 농어촌 체험을 통한 '체험'은 관광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이다. 느리게 걸을수록 더 아름다운 슬로길도 바쁜 현대인에게 쉽고 여유를 안긴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완도군과 전남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완도와 전남의 관광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존의 관광 자원을 보존하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면 다른 분야와의 결합으로 부가가치를 키워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관광 콘텐츠로 소규모 가족 단위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등 관광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 '2024 한국 관광의 별' 선정은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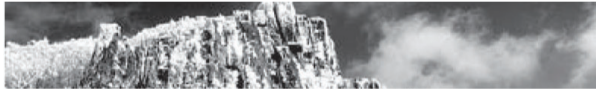
18일(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뉴질랜드 공군 병사들이 규모 7.3의 강진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를 지원할 구호 물품을 허큘리스 C130H 수송기에 선적하고 있다. 지난 17일 바누아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누아투는 호주 대륙 옆 남태평양의 8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인구는 약 33만 명이다.

AP/뉴스시

서석대

"오늘은 동지 날/신생의 태양이 다시 밝아오는 날/숨 죽고 억눌리고 죽어 있던/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날." 얼굴 없는 시인으로 불렸던 박노해에게 겨울, 그 중에서도 동지(冬至)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 시집 '노동의 새벽'으로 한국 사회와 문단에 큰 충격을 안겼던 박 시인. 1991년 체포돼 199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때까지 7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그는 동지가 지나고 나면 밤은 점점 짧아지고, 낮은 길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나긴 수감생활을 버텼다. 자신이 겪는 지금의 어둠도 동지가 지나면 서서히 바뀔 것이라는 희망도 잃지 않았다.

1978년 조세희 작가가 출간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도 가장 긴 밤을 통해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에서 동지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반으로 갈린 한반도 남쪽에 살아가는 '난장이'.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에게 겨울은 지옥이었고, 주어진 하루 하루도 견디기 힘든 전쟁이었다. 그런 '난장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지듯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눈물도 보람 없이 흘려야 하고, 마음은 억눌려도 결코 난장이의 희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조 작가의 이야기다.



동짓날의 희망

동지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는 가장 짧은 날이다. 한겨울 음의 기운에 휩싸인 만물에 양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겨울의 끝인 만큼 서서히 다가오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로 생각해 축제를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지는 '작은 설'로 불렸다. 태양이 그런 것처럼 사람 역시 동지가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상들의 각오였다. 액땀을 하기 위해 붉은 팔로 팔죽을 쑤어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이때였다.

21일은 동지다. 이날을 시작으로 밤은 점점 짧아지고 낮은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올해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를 꼽았을 정도로 수많은 사건들이 뒤엉킨 격동의 한해였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에 잠을 설쳤던 기억도 유난히 많았다. 그래도 내일이 지나면 희망의 해가 다시 시작될 터다. 동지가 주는 가르침은 한겨울의 어둠이 아니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곧 끝나간다는 희망에 있다. 편가르고 불통, 계엄과 탄핵까지 숨 가뻔했던 2024년의 끝 자락.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동짓날부터 시작될 희망을 되새길 때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